



# 濁流清論

제47호 2017년 3월 17일

발행인: 정 영 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717@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더불어 푸른 출발에서 신임의장 인사말 1

특집 2  
- 교수회 의장직을 마치며  
- 신임 교원 소개

소통과 담론 9  
[과학의 한귀통이]  
잎 없이 꽃을 피운다는 건

교수들의 건강칼럼 11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뭔가요?

소식 12  
2016학년도 교수회 총회  
개최

### 더불어 푸른 출발에서

## 신임의장 인사말

의학과 정신건강의학교실 정 영 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도 1학기부터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을 맡게 된 의과대학 정영기입니다. 지난 2월 28일 교수회 총회 석상에서 간단한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하여 모든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회 의장에 취임했지만 아직 아주대학교 교수회 회칙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그 회칙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에 관계없이 교수회 존재 제일의 목적은 교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권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교수 사회가 누리는 자율성과 비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수 협의회 시절부터 이런 저런 직함을 가지고 꽤 긴 시간 교수회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해 본 제 경험으로는 교수사회의 자율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주어지거나 쟁취했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학교가 “각 단과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이를 동력원으로 삼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와는 달리 전임 이순일 의장께서 이임석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과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는 틀 안에서 오히려 교수들의 자율성이 훼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의과대학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의료원 산하 기관으로서 타 단과 대학과는 별개의 대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원에서는 교수의 자율성이나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아주대학교 전체 교수공동체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큼니다. 단과 대학 자율성 강화라는 허울 아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타 단과 대학 교수님들이나 대학본부도 의료원 교수들의 교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주대학교 교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되도록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취미를 나누고, 또 가능하면 여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 의 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하여 온 아주대학 교수들이 체육대회를 열거나 등산을 같이 하고 난 후 뒤통이를 가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보다 교수 사회의 자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컸었던 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활동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자주 만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의과대학과 같이 구성원 속성이 비교적 단일한 단과 대학에서도 교수회가

교수들 한 번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수들의 만남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공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공고해질수록 교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교수회의 근본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 모든 단과 대학의 대의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단과 대학의 대의원들께서는 앞으로 교수님들의 만남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전체 교수님들의 만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저의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교수회를 맡아 이끌어 주신 이순일 의장님, 이은소 부의장님, 신강현 총무님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인사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회 의장직을 마치며

물리학과 이 순 일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격랑의 시기들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특별한 것 없는 2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이렇게 대학이 외견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조율과 타협의 지혜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정책 결정들을 되도록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고자 노력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담론이 결여된 한계에서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다는 말씀은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숙제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아주대학에서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 남기고자 합니다. 교수회 의장으로 취임하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렸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재정 상태 및 운영의 정책적 함의를 파악’ 하고 ‘동료 교수들께서 명확히 알리도록 노력’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전달과 확산’이라는 약속을 비교적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 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향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마땅한 재단과 총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학의 재정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법인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비로 충당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의 100% 재단 부담은 책임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는 소송과 관련된 제반 법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런 행위를 불법이라 판결하고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비 회계에서 교육 외의 용도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교비 전용 행위를 반복한다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대학 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대학 공동체의 공론’ 을 형성하고, 이를 ‘대학의 정책에 반영’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힘쓰기는 했지만, 성과에 대해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총장 연례평가’, ‘복지정책 소위 활동 및 설문 조사’, ‘이상혁 교수님 추모 사업’, ‘도서관 부분 개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시국선언문 서명 및 발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대학 공동체의 공론 형성을 촉진하고자 노력했으나, 과연 교수 사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수 사회 내에서 공론의 형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교수회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시들해지

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취임 직후에 “교수회를 다시 생각한다” 라는 글을 통해서도 의견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시류의 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공동체에 대한 헌신’ 또는 ‘도덕적 책무’ 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알기에 교수회가 너무 투쟁적인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고 교수회가 의례적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으로 전략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실무적 유형의 교수회라는 새로운 모형이었습니다. 대학의 본원적 가치와 존재 이유 및 대학 운영의 원칙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답답함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적 기능을 입증하는 교수회 모형을 정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기능 위주의 교수회는 속성상 신뢰를 얻는 데 내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갈등 수위가 낮아 조율과 타협을 통해 소임을 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 본부의 행정만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비춰져, 교수회의 존재 가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정적 결과가 크게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회가 적극적 간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성공하고 나면,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공연스레 교수회가 나서 갈등을 키웠다는 엉뚱한 비난이 따릅니다. ‘자기 부정적 예언 (self-defeating prophecy)’ 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면서도 교수회는 갈등의 공개와 확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학자인 샤츠슈나이더의 지적처럼 모든 갈등을 사적인 것으로 묶어두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강자의 의도입니다. 외부 개입 없이 갈등이 사적 범주로 남아 있는 한, 힘의 우위를 가진 강자가 갈등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갈등을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논쟁에 참여시켜 불평등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갈등의 사회화는 약자가 자신을 지키고 시민권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입니다.

교수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간의 교수회 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좌표 설정과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후임 교수회 의장과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임 대통령 한

분의 말씀을 빌어서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교수협의회가 교수회로 위상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처음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은 지난 시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 이 제 몫이었습니다.

2017. 2. 28

이 순 일

특집

신임교원 소개(가나다순)

기계공학과 고 제 성

저는 이번에 기계공학과에 새로 임용된 고제성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분야는 초소형 생체 모방 로봇으로 로봇 설계에 있어 스케일의 한계를 생체모방 메커니즘과 새로운 재료 및 제조 공정의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2년여 간 박사 후 과정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사 학위 주제였던 소금쟁이 모사 로봇의 수면 도약 원리에 관한 연구입니다. 소금쟁이의 수면 도약 원리를 실제 크기의 로봇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그 원리를 증명한 연구입니다. 로봇 기술 자체의 응용을 떠나 생물학, 유체역학의 의문을 풀어보는 것도 로봇의 역할이 될 수 있었던 연구라 더욱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뛰어난 성능의 생물의 동작 메커니즘을 로봇으로 구현해보고 그 원리를 실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는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봇 설계뿐 아니라 신소재를 적용하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쉽게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로봇을 생활 가까이 가져가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학생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아주대학교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을 세계 어디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전자공학과 김 상 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3월부터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김상완입니다. 비록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서라도 선배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2014년 박사학위를 마친 뒤, 미국 UC Berkeley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재직하였습니다. 주 연구분야는 실리콘/게르마늄 기반의 미래형/차세대 반도체소자로서, 저전력 로직반도체소자를 시작으로 디램 및 비휘발성 메모리 등 다양한 메모리소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자를 이용하여 신경모방 소자/회로에 대한 연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항상 한편으로는 미약하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하여, 아직 젊지만 후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곳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점,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아직은 선배 교수님들의 학식과 연륜에는 비할 바 못하지만, 열정은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한 선배 교수님들을 본받아 저를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며 다양한 세계적 선도 연구를 함께 수행함을 물론,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학과 이비인후과학교실 박도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의학과 이비인후과학교실 비(鼻)과학에 임명된 박도양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졸업 및 수련 후, 순천향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을 거쳐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옮겨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와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하듯, 수련을 마친 후 진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 강사의 기회를 주셔서 제게 교직의 숭고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대학교에 받은 인상은 깊이 있는 연구와 수준 높은 진료, 여러 선생님들의 강한 열정과 캠퍼스의 활발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저를 현재 교직에 있게끔 해준 발화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학 분야 중에서도 코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여러 타 분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협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코에 관련한 기본적인 면역, 후각 및 감각기, 수면 및 저산소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나, 여러 선배 교수님들이 빛내 오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번 아주대학교에서 제게 주신 기회가 결코나 권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자, 저와 아주대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학과 이승환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봄학기부터 경영학과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승환입니다. 저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계량 마케팅을 주 전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가격 차별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객의 가격/서비스 인지와 기업의 전략의 상호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에서 대학 생활을 하여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제 연구 주제들도 기술 발전에 따른 고객 행동과 인지 변화가 기업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의 급격한 정보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마케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흥미롭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앞으로의 기대가 큼니다. 그리고 그 동안 친절히 정착을 도와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과 및 본부의 선생님들 덕분에 차근차근 아주대학교 안에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뛰어난 학생들과 훌륭한 학자이자 동시에 교육자이신 선배님들과 함께 아주 가족으로서 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신소재공학과 이재현

안녕하세요, 2017년 봄학기에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 새로 임용된 이재현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선임 교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을 졸업한 후, 2014년 동 대학교 나노과학기술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로 선정되었으며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국립 그래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이번 3월부터 새로운 “아주 가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저차원 나노 소재들을 목적에 맞게, 특성 그리고 구조 등을 제어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맨체스터 대학에서의 연구원 생활을 통해서 원자 두께를 가진 2차원 소재를 적층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곧 선배,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입교원이라는 장점을 살려 학생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외교학과 이한수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이한수입니다. 무엇보다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09년 Texas A&M University에서 미국 정치를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세부 연구 분야는 정치행태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정치 과정입니다. 학위를 마친 후 대통령과 여론,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력 관계를 중점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의 행태와 선거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강의 분야는 연구 관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 Texas A&M University와 University of Iowa에서 미국 정치와 정치행태 관련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2011년 한국에 귀국해서도 다수의 정치과정 관련 과목들을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주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과 소통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주대학교의 모습은 그간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학과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전엽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신입교원 장전엽입니다. 저는 두경부외과 및 후두음성 분야를 세부 전공하였으며, 지난 3년 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가, 금번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조교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약 3년 간 혈관생물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경부암의 전이 통로가 되는 림프관의 조절 양상을 밝혀 임상과 연계하는 중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꿈꿔 왔던 전임교원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 동안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치면서 아주대학교의 활발한 연구 수행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알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입교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신중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및 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의 삼박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앞서 이러한 길을 개척하셨던 여러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실의 전통과 문화에 조화롭게 적응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계공학과 조병남

2007년, 아주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주대에 돌아온다면 나한테는 참 좋은 매듭이 되겠다.’ 10년이 흘렀고, 난 아주대로 돌아왔다.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을 때만 해도, 꼭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공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다. 학부 시절에는 유체역학과 열전달이 좋았고, 석사과정에서는 나노유체를 연구하면서 나노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박사 과정에서는 바이오 관련 연구도 잠시 경험했고, 나노유체를 태양열 발전에 이용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포닥과정을 위해서 일본 동경대학교에 갔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질문을 받는다. 왜 일본에 갔느냐고.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내가 일본 아이돌 그룹이 좋아서 일본으로 갔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 한다. 일본에서는 원자력 공학과에 소속되어서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처음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지도 교수님 덕분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갈 수 있었다.

3년간의 포닥, 그리고 1년 간의 조교수 생활을 마치고 아주대로 돌아왔다. 미국 유학길에 떠올렸던 생각을 거창한 목표로 잡고, 그 목표만을 위해서 숨차게 뛰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으로, 연구원으로, 그리고 교수로 생활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운을 얻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항상 감사하다. 내가 아주대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내가 원하는 매듭을 만들고 있듯이, 나도 우리 학생들, 아니 후배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매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 의학과 치과학교실 지 숙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신입교원 지숙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작년 3월에 와서 1년 동안의 특임교원을 거쳐 이번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치주질환을 사랑하는 치주과 의사이자 과학자이고 싶습니다. 치주질환으로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고 이를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병이 있었던 사람이 치료를 통해 올바른 칫솔질을 배우고 습관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단단한 잇몸을 갖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치주질환은 구강 내 수없이 많은 세균들에 의한 염증에서 비롯되는 질환으로 세균과 우리 몸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세균과 우리 몸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평형이 깨졌을 때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존 혹은 싸움에서 세균의 역할은 무엇이고 세균의 침입에 대해 우리 몸 세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저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최영님 교수님과 함께 세균과 세포와의 관계를 통해 치주질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주염 바이오마커로써 ODAM(Odontogenic Ameloblast-associated Protein)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치주과,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칫솔질을 잘할 수 있을까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이러한 일을 계속하게 해 줄 바탕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치주과 의사로서 그리고 치주과학 학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경영학과 최 환 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학년도에 아주대학교에 임용된 최환호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빌어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맨체스터 경영 대학원에서 소비자문화, 디지털 시대 마케팅 관련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임용되기 전에는 국내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했었고 2016년도에는 연세대학교 내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관심사는 소비자 문화, 디지털 문화, 문화 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영역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 내용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프트웨어학과 한 경 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한경식입니다. 저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석사 학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가 연구소인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에서 Research Scientist로 근무를 한 후, 올해 아주대학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훌륭한 대학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채용 진행 과정에서부터 첫 학기가 시작된 지금까지 아주대학교는 저에게 좋은 인상만을 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간의 입장과 환경을 다양한 디자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보다 인간 중심의, 효율적인 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간의 입장과 환경을 다양한 디자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보다 인간 중심의, 효율적인 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연구하여 특정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좋은 연구, 훌륭한 연구,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업,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대학원생 지도에 힘쓸 것이며, 학과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기계공학과 한승용

안녕하세요. 2017년 1학기부터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신입교원으로 임용된 한승용입니다. 다시 한 번 아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탁류청론을 통해 많은 교수님께 인사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도 감사 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께 겸손한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04번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기초 지식을 아주대학교에서 습득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생으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John A. Rogers 그룹에서 2년 간의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한 후 다시 아주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는 나노물질과 레이저 공정을 결합하여 별도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상온에서 쉽고 빠르게 유연전기소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별도의 고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레이저의 빠른 스캐닝 스피드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열에 의한 산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짧은 시간에 수천 개의 유연전자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레이저의 파워 및 스캐닝 스피드를 조절하여 유리 외의 다양한 폴리머 기판 위에서도 기판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전자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John A. Rogers 그룹에서 습득한 인공전자피부에 관한 연구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전자소자 안에 온도, 압력, 습도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제작하였고 별도의 무선 통신 기술을 센서 안에 결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작고 얇은 센서는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통신이 가능함으로써 몸 내부, 즉 신체의 장기에도 이식할 수 있는 유연전자소자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고, 실제 클리닉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기계공학 기반의 나노/바이오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학과,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연구,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 [과학의 한귀통이] 잎 없이 꽃을 피운다는 건\*

약학과 김홍표

가을 잎이 봄꽃보다 붉다는 한시 구절을 들어가며 사람들은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찬탄한다. 여기서 봄꽃은 붉은 매화쯤 될 것이다. 봄의 꽃, 가을의 단풍 둘 다 ‘붉지만’ 쓰임새는 분명 다르다. 매화꽃은 벌을 불러들이지만 버릴 채비를 한다. 하지를 지나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활엽수 잎은 푸름을 버릴 채비를 한다. 붉은 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겠다는 식물의 결연한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물의 계절성을 열역학적으로 표현하면 ‘봄은 가을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가을 햇빛은 화학에너지 형태(탄수화물)로 저장되지 않고 다만 잠시 단풍잎을 따뜻하게 덥힐 뿐이다. 가을은 저절로 봄이 될 수 없다. 잘린 도마뱀 꼬리가 다시 도마뱀이 되지 못하듯이 낙엽이 나무에

달라붙어 푸르게 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이 나무는 봄을 준비한다. 물론 내년을 모르는 초본 식물은 다음 세대를 싹 틈을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한다. 한층 날이 온화해졌다. 밖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주변의 나무를 가까이서 살펴보자. 지난 여름에 만들어져 장차 피울 꽃눈은 이미 물기를 머금고 있다. 남도의 화신은 도착한 지 벌써 오래다. 험벗은 나무가 꽃을 피우거나 잎을 내놓는 데는 기온과 낮의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욱 필수적인 것은 다년생 식물이 저장해 놓은 탄수화물의 양이다. 지난해 작황이 좋았던 은행나무나 감나무가 올해는 과실의 수를 대폭 줄이지 않던가? 바로 ‘헤거리’ 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주된 영양소는 탄소와 질소, 그리고 인이다. 질소와 인은 밖에서 들여와야 하지만 탄소는 식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다. 식물의 잎이 푸른 이유는 광합성 공장인 엽록체(葉綠體)가 말 그대로 푸르기 때문이다. 엽록체는 태양의 빛을 여투어 자기도 쓰고 후대를 위해 저장한다. 덧붙이자면 광합성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를 통해 확보한 물을 버무려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생식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인간을 포함한 태반포유동물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할당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한다. 산모의 손발톱은 평소보다 더디게 자라고 뇌의 무게도 줄어든다. 자신의 자원을 자식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도 생식에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평생 단 한번 꽃을 피우는 어떤 대나무는 꽃이 떨어짐과 동시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까닭이다.

동물이 그렇듯이 식물도 그 자손이 새로운 개체로 살아남을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자신의 생식 전략을 구사한다. 이른 봄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의 경우를 보자. 중국의 한 연구진들은 25년 간 기후에 관한 기상청의 자료를 확보한 후 그 데이터를 살구나무의 꽃과 잎이 처음 나오는 시기와 비교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살구나무의 꽃과 잎이 낮의 길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이른 봄 서둘러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은 태양에서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을지라도 기꺼이 꽃잎을 펼쳤다. 반면 잎은 빛의 양을 좀 더 필요로 했다. 그것이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의 생식 전략이다. 이렇듯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화,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 그리고 과일나무인 살구, 복숭아 등이 그런 예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남보다 서둘러 한꺼번에 꽃을 피우면 수정을 매개하는 이른 봄날의 곤충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맞는 말이다. 또한 잎이 없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아가는 데 방해될 덜 받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낮의 길이는 특정 지역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의 양으로 환산될 수 있다. 문제는 낮의 길이가 절기와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표면에 쏟아지는 광자라 불리는 빛 알갱이 100개 중 하나만이 광합성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지구를 덮히거나 하릴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하나의 빛 알갱이가 지구 생명체 대부분을 먹여 살린다. 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식물이 생산한 먹을 거리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른 봄이 아닌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잎이 생산한 탄수화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봄에 서둘러 꽃을 피우는 나무는 작년에 저장해둔 에너지 말고는 여유가 없다. 그것도 겨울을 나느라 일부 써버렸다.

잎 없이 꽃을 피우는 행위는 자체로 무척 위험한 아름다움이다. 광합성 공장이 없기에 벌에게 제공할 꿀도 많이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비록 적은 양의 꿀일지라도 벌은 먼 거리 날갯짓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른 봄 식물과 동물이 춘궁기를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생물학적’ 안타까움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모든 생체 시계(biological clock)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에 여투어 두었던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운 식물은 봄을 맞이하는(入) 대신 굳건히 세운다(立). 소리 없이 그러나 우쭉우쭉 봄을 세운다.(立春)

##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뭐가요?

영상의학교실 원제환

내가 공중보건의로사로 춘천의료원에서 근무했던 90년 대 초, 간에 농양이 생기면 서울로 보내 간 절제술을 했고, 폐결핵으로 객혈을 하면 약물치료만 하면서 마음 졸이고 멈추길 바랬으며, 중학교 은사님이 간경화로 인해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하셨을 때는 지금은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얼음물로 하염없이 위세척을 하며 역시 출혈을 멈추길 바랬었다.(돌이켜 보면 25년 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은 살릴 수 있는데 그때는 속절 없이 보내야 했던 환자가 많았었다)

요즘 간농양은 수술하지 않고 초음파 유도 하에 튜브만 넣어서 밖으로 빼낸다. 객혈은 사타구니 동맥으로 들어가서 기관지동맥을 작은 알갱이로 막는 색전술로 객혈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식도위정맥 출혈은 TIPS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시술로서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인터벤션(interventional radiologic procedure)이다.

인터벤션 시술의 특징은 전신마취나 개복술 같은 수술 없이 영상장비 유도 하에 치료하는 것이다. 당연히 회복기간이 빠르고 입원기간도 짧아진다. 예를 들어 다리 혈관이 막혔을 때 사타구니 동맥의 작은 홈을 만들고 이 곳을 통해 풍선을 삽입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히거나 스텐트라고 하는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넓히기도 한다. 때로는 간암 환자에서 간암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작은 관(카테터)로 접근하여 항암제를 주입하고 혈관을 막아서 괴사를 유도한다.

과거에는 중재적 방사선학, 중재시술이라고 불렀으나 이 ‘중재’ 라는 말은 intervention을 번역한 한자어이고 일반인들은 처음 들었을 때 그 뜻이 모호해 이해하기 어렵다. 몇 년 전 당시 중재적 방사선학회에서는 새로운 학회 이름을 공모하였는데 당시에 경합을 벌였던 것이 ‘영상유도치료학회’ 와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둘이었다. 전자는 처음 들었을 때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후자는 어차피 이해 못할 것 그냥 어설피게 한국말로 번역하지 말고 영어를 그냥 쓰자는 배짱이었다. 치과에서 쓰는 implant를 ‘인공치아 삽입술’ 이라고 하지 않고, ‘임플란트’ 로 쓰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우리 학회가 이후에 대중들에게 꾸준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벤션이란 말은 늘 대중들에게 생소하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만아들이 뭐 하는 의사인지를 아무리 설명 드렸지만 아직도 ‘치료방사선과’ (지금은 개명하여 방사선종양학과)로 알고 계시거나 일반적 영상의학과는 아닌 걸로만 알고 계시다. 일반인들에게 인터벤션 치료가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과가 직접 외래에서 환자를 보는 일이 적고 대부분이 임상외과가 우리 과에 시술을 의뢰하는 형태로 환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내과에 입원한 환자들은 우리 과에서 의뢰 받아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과 선생님이 시술을 하는 줄 착각하기도 한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의 발전은 의사들의 노력도 있지만 시술도구들을 개발하는 의공학의 발전에도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어서 여러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와 학자들이 새로운 시술도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동맥류 환자를 치료할 때 삽입하는 인조혈관 스텐트 그라프트 세트는 1,500만 원에 달한다. 사실 철사로 엮은 원통그물망에 천 쪼가리 입힌 것인데 천 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대부분 놀란다. 하지만 섬세하고도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야, 사람 몸 속에 오래 동안 두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자동차 부품이야 정품을 쓰지 않더라도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것으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으나 인체는 그러하지 않다. 아주대도 이 분야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학계에 명성을 떨치시는 공대 교수님들이 여럿 계시다.

의학은 점차 비침습적(non-invasive)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 개복해서 하던 수술도 복강경을 넣어 수술하거나,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부위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 인터벤션도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과거에 수술로 하던 치료를 혈관에 관을 넣어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많은 치료방법들이 인터벤션 시술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더 많은 인터벤션 치료가 개발되어있을 것이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역동성 있는 학문이라 지루할 사이가 없어서 좋긴

한데, 매년 새로운 장비와 기구가 나오면 빨리 그것을 익혀야 하는 처지라서 힘이 들기도 하다. 특히 슬슬 나이가 먹으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가 귀찮아진다. ‘지금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적당히 살아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유혹이 들기도 한다. 거창하게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더 이상 좋은 의사이자 교수가 될 수는 없을 듯하여 오늘도 투덜대며 새로 나온 기구를 만지작거리려 본다.

소식

교수회 소식

2016학년도 교수회 총회 개최



지난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다산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의대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교수님 80분 정도가 참석해 주셨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교수회 신강현 총무의 사회로 정기총회는 시작되었으며, 이순일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는 크게 보고 사항과 논의사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보고 사항 -                                                                                                                                                                                                                         | - 논의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6학년도 교수회 사업 보고</li> <li>    (1)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 개최</li> <li>    (2)故 이상혁 교수님 추모 사업</li> <li>    (3) 총장평가</li> <li>    (4) 교수회 복지소위원회</li> <li>    (5) 기타 사업</li> <li>2) 감사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회 선정 의제: '단과대학 자율성 강화' 추진의 의미와 전망 및 우려</li> <li>2) 현장 발의 의제</li> </ul> |



#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y717@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올곡관 263호

한 해 동안 교수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해드렸으며, 기타사업으로는 매 학기 1회씩 개최하는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보고 사항에 이어 교수회 감사이신 구형건 교수님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논의 사항으로 위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박재범 교수님이 의과대학의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년 간의 교수회 의장 임기를 마친 이순일 교수님의 이임사 및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패는 2017년부터 신입 의장으로 선출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정영기 교수님이 전달하였으며, 신입 의장 인사말로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기총회는 교수회 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됩니다. 교수회 정기총회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 정기총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이재호(편집책임), 김상배, 박재연, 노명우, 윤호섭